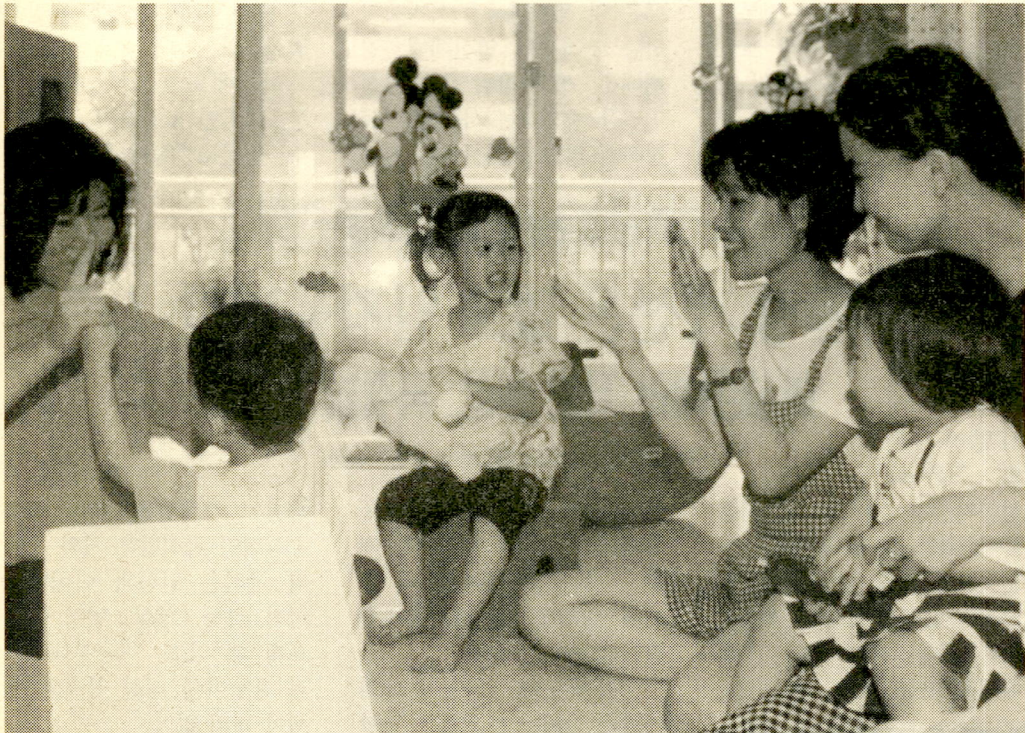


‘필요충분조건’ 된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대부분 12시간 종일제 보육에 한정 청주대 표갑수 교수, 취업모 상황 고려한 보육유형 제안



영유아 보육사업이 확대해가고 있는 요즘 우리 나라 역시 야간보육, 휴일보육,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부분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보육유형은 종일제에 한정돼 있어 보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회복지 법인 사랑의 전화가 최근 마련한 세미나 ‘24시간 타아의 필요성과 전망’에서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표갑수 교수는 “영유아 보육사업이 확대해가고 있는 요즘 우리 나라 역시 야간보육, 휴일보육,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부분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육의 유형에는 시간제(하루 2~3시간 정도), 12시간 보육제, 야간보육제(오후 7시30분부터 다음날 아침 7시30분까지), 휴일제, 24시간

제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귀가하는 주보육제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보육이 이루어질 경우 12시간의 종일제 유형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

표 교수에 의하면 우리 나

리양육자의 잦은 변경으로 어머니나 아이 모두 적응기간 동안 고통을 겪는다는 것. 또한 저소득층 취업모들의 경우 출산 직후에 휴직이나 무직 상태로 있거나 집에서 부업을 하면서 직접 자녀양육을 하는

**취업모의 가사노동시간은 4.1시간,
일일 총 노동시간은 14.7시간으로
과중한 노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일제 보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라의 경우 중산층 취업모는 대부분 1~2개월간 산후휴가 후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에게 양육을 부탁하거나 파출부 또는 가정부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자녀양육을 맡기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과정에서 대

형태가 출산 뒤 2~3년 동안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며 8.1%가 작업장에서 준방치, 43.9%가 집에서 방치되며 13.6%는 그냥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94년 현재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7.9%, 전체 여성 취업자의 74.8%가 기혼여성”이라고 분석한 표 교수는 취업 여성의 노동과 가사노동 시간을 예로 들어 보편적이며 ‘최적’을 추구하는 복지개념으로서의 보육유형의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즉 “한 조사에 의하면 취업모의 가사노동시간이 4.1시간, 일일 총 노동시간은 14.7시간으로 과중한 노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 종일제 보육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표 교수의 분석. 여성노동자의 대부분이 생산직(57.2%)에 종사한다는 점을 감안, “생산직은 근무시간이 저녁이나 한밤중에도 근무를 해야 하므로 시간제 보육, 야간보육, 새벽시간 보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숙박, 음식점업과 서비스업의 경우도 24시간제 보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일반 보육 외에 영아보육, 야간보육, 연장보육, 일시적 보육, 장시간보육 등의 보육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며 중국은 종일제, 반일제, 수요일 저녁이나 주말에 가정에 갈 수 있는 기숙프로그램이 있고 북한

이 경우도 케저타이스 이이